

복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이 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 6-7페이지에 나오는 '인도자들을 위한 지침'을 꼭 숙지해주세요.

인도자를 위한 이 과의 목적 :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도전한다.



말씀 깨닫기 위한 준비

오늘의 말씀 : 마가복음 1:1, 21~24, 34~39

찬송 : 502장(통 259,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 : 인도자 혹은 자원자

지난 주 말씀 적용한 것 나누기

마음 열기 : 자신이 지금까지 들은 소식들 가운데 가장 기뻐던 소식은 무엇입니까?

말씀 듣기 1 : 본문을 다 함께 천천히 읽어 봅시다.

배경설명 및 도움말 :

인도자가 읽거나 혹은 미리 숙지해 온 것을 설명해 줌으로써 참가자들이 두 번째 말씀을 듣는 동안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도록 해줍니다.

Kingdom
Life



배경설명 :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1-9장과 10-16장)으로 나뉜다.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적 권능을 가지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후반부는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을 통해 인류 구속이라는 사역을 성취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저자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한다. 이것은 마가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별히, 마가는 예수님의 가르침(teaching)보다 능력으로 행하신 사역(work)을 더 부각시킴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 마가는 그의 글 서두에서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예수님의 족보나 탄생에 대한 기록을 생략한 채 예수님의 공생애 준비 과정을 매우 간략하게 기록해 놓았고(1:2-13절),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세있는 놀라운 능력 사역들을 전개해 나간다(1:21-34절).

도움말 :

- 복음(1절, 헬: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문자적 의미를 지닌 ‘유앙겔리온’은 그 당시 로마 시민들에게 로마 황제의 즉위 혹은 전쟁에서의 승리와 로마 왕국의 통치를 의미하는 말이었다.
- 때가 찼고(15절):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정하신 때가 이르렀다는 말이다.
- 하나님의 나라(15절, 헬:바실레이아 투 테우):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 개념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 회개하고(15절, 헬:메타노에오): 문자적 의미는 ‘사고 방식을 바꾸라’는 의미이다.
- 권위(22절, 헬:엑수시아): 하나님께서 수여하시는 권세나 능력(authority, conferred power).
- 서기관들(22절):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 전도(38절, 헬:케루소): 대중에게 확신을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의미이다.

말씀 듣기 2 :

한 사람이 다시 본문을 천천히 읽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경청합시다.



말씀 깨닫기

1. 저자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어떠한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 ▶ 마가가 그의 책을 이러한 말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가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낸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 참고로, 마가는 그의 복음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며(3:11, 5:7, 15:39 참조), 1장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써 행하신 여러 기적들을 빠른 템포로 소개한다.

2.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4-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 ▶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회개하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도움말 참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는 ‘사고 방식을 바꾸라’는 것이다. 어떤 사고방식을 어떤 사고방식으로 바꾸라는 것일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 위해 세상 나라에 속해 살던 때에 지녔던 세상적 사고 방식을 하나님 나라 사고 방식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이것이 ‘회개하라’는 말에 담긴 구체적 의미이다.

- ▶ 마가가 가르쳐 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복음을 믿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것을 요구한다. 회개할 것을 요구한다. 즉, 사고방식의 변화를 통한 삶의 변화를 요구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변화되어가고 있는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내용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넘어 일상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고 있는가?

3.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갈릴리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무엇입니까?(21-22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 예수님께서 ‘권위있는 자’와 같았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도움말 참조).

여기에서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나 권세를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듣는 사람들은 그 당시 율법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특별한 능력이나 권세를 예수님에게서 감지했던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권위있는 자와 같았다는 표현은 마가가 서두에서 복음의 시작으로 소개한 것,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그 때 회당에 있던 귀신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알아보았다(23-24절).

▶ 예수님(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에(딤후 3:16 참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히 4:12 참조) 권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에 오늘도 그 말씀을 읽거나 듣는 자들은 다른 어떤 책들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체험들을 하곤한다. 각자의 체험들을 자유롭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기는 시간을 가져보자.

4.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등 바쁜 사역을 행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34-39절)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도움말 참조)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복음을 입술로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등 능력으로 복음을 확증해 보이셨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과, 능력으로 그 복음을 확증하는 것 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전도하는 삶,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격하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들은 적어도 한 번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누어 보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일깨우는 시간을 가져보자. 참고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난다 (고전 12:3 참조).



말씀 살기

*인도자는 참가자용에 나오는 두 개의 질문들을 다루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식의 질문을 먼저 하라 : “오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보고, 그 말씀을 한 주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1.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좋을 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한 주간 주변의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꼭 전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 내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등 행동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 우리도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주셨다고 전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치유와 축사의 능력이 주어졌다면, 복음을 전할 때 그러한 은사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선한 행위를 베풀으로써 행동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각자의 생각을 나누어 본 후, 한 주간 적어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보자.

2. 우리 소그룹이 함께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고 실천해 봅시다.

예)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에게 건강식을 만들어 가져다 주기, 부부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이웃의 사연을 경청하고 위로하기 등.